

광주 고교 간 실력 평준화

서울대 합격자 134명...3~5명 배출 학교 늘어

사립 강세, 북구·남구 '명문학군' 입증

광주의 이른바 '명문고 서열'이 요동치고, 고교 간 실력 평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표>을 서울대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명 이상 합격시킨 학교는 한 곳도 없었으며, 광주송일고와 살레시오고가 각각 7명씩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6명 이상 합격자를 낸 고교가 지난해와 같은 6곳에 그친 가운데, 3~5명의 합격자를 낸 학교가 지난해 16곳에서 올해 22곳으로 6곳 늘어 광주지역 일선 고교의 실력 평준화가 두드러졌다. 광주지역 48개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의 서울대 합격자 수는 134명으로(추가합격자 제외), 지난해 129명에 비해 5명 늘었다.

이는 광주일보가 광주지역 인문계 고교 41곳을 포함해 광주과학고·광주예술고 등 모두 48곳의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지난 2일 발표한 서울대 합격자 수를 조사한 결과다.

서울대 합격자 수로 명문고를 따지기에 대학입시가 워낙 다양해졌지만, 대부분 서울대 합격자 수가 많은 고교가 이른바 일류대 일류학과 합격자

수도 많다는 것이 입시지도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학교별 합격자 수는 광주송일·살레시오고가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덕·광주과학·국제·송덕고가 각각 6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려·광주인성·대광여·금호·문성·살레시오 여고는 각각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광주석산·광주송일·동아여고는 각각 4명의 합격자를 냈다. 13개교는 각각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난 2004년에 문성고 12명, 송덕고 11명 등 2개 고교가 1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했고, 2005년에 송덕고 15명, 고려고 13명, 대광여고 12명 등 3개 고교에서 10명 이상을 합격시켰던 것에 비교하면 광주지역 각 고교의 명문 서열은 심한 부침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명문 사립고'인 광주인성·광주서석고는 지난해에 비해 합격자 수가 각각 4명 줄어 중위권으로 내려앉았고, "뜨는 명문"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송일고와 살레시오고는 각각 5명과 3명이 늘며 상위권으로 부상했다. 송덕고는 지난해와 같은 6명으로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 서울대 합격자 수 ※ 학교 축 발표

합격자 수	2006년(129명, 40개교)	2007년(134명, 39개교)
9명	광주인성(1개교)	광주송일, 살레시오(2개교)
8명	금호(1개교)	광덕, 광주과학, 국제, 송덕(4개교)
7명	광주과학, 광주서석(2개교)	고려, 광주인성, 대광여, 금호, 문성, 살레시오여(6개교)
6명	고려, 송덕(2개교)	광주석산, 광주송일, 동아여(3개교)
5명	광주대동, 광주동신, 동아여, 전남, 정광(5개교)	광주대동, 광주동신여, 광주동성, 광주서석, 광주수피아여, 광주제일, 광주중앙여, 대성여, 서경, 송원여, 전남, 정광(13개교)
4명	문성, 살레시오, 전대사대부, 조대부(4개교)	광주석산, 광주송일, 동아여(3개교)
3명	광덕, 광주동신여, 광주석산, 광주중앙여, 국제, 상무, 용암(7개교)	광주대동, 광주동신여, 광주동성, 광주서석, 광주수피아여, 광주제일, 광주중앙여, 대성여, 서경, 송원여, 전남, 정광(13개교)
2명	광주동성, 광주수피아여, 광주송일, 광주제일, 대광여, 용암(6개교)	광주, 광주여, 광주경신여, 광주예술, 광주진흥, 보문, 서경, 송원여, 송원, 송원여, 전남여, 조대여(12개교)
1명	광주, 광주여, 광주경신여, 광주예술, 광주진흥, 보문, 서경, 송원여, 송원, 송원여, 전남여, 조대여(12개교)	광주, 광주여, 광주경신여, 광주예술, 송원여, 전남여, 전대사대부, 조대부, 용암(7개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신흥 명문 3K'로 불리는 고려·국제·금호고는 각각 5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광주의 '명문 사립고'로 분류됐던 고려·광주인성·광주서석·금호·대광여·문성·송덕고의 서울대 합격자 수가 최근 2~3년 사이 많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반면 5~3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중위권 고교는 16곳에서 22곳으로 늘었고, 이들 학교 합격자 수가 일반계 고교 48곳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3%에서 45.8%로 증가했다. 광주지역 고

교의 실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밀집해 있는 북구(47명)와 남구(46명)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사립별로는 국·공립 13개 고교 중 개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3학년이 없는 철만고를 제외한 12개교에서 22명이 합격해 평균 1.83명의 분포를 보였다. 사립의 경우 광일·세종·동명·호남삼육 등 4개교를 제외한 31개교에서 모두 112명을 합격시켜 평균 3.9명으로 사립의 강세가 올해도 여전히 재현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시름의 굴 따기 장흥군 용산면 남포리 어민들이 제철 맞은 굴을 채취하고 있다. 80kg 1포대에 5만원. 하지만 지난해 고수온 현상으로 여수·고흥 등 전남 동부지역의 양식 굴 생산량이 25~50% 떨어져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장흥=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평동산도서의 중점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단기!
 (평동산도서) 400명 100% 할인!
 수권산도서 피오레
 문의: 062-367-9000

서울대 논술 평가, 郡지역이 높다?

서울대 보도자료 놓고 네티즌 설전

최근 서울대가 '군 단위 학생들의 논술 점수가 서울 지역보다 더 낮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는 한 네티즌의 글이 올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 게시판 '아고라'에는 자신을 '경북의 강촌에 사는 88년생'이라고 밝힌 네티즌 'Roines'가 '서울대, 군지역 학생 논술점수가 더 높다구요?'라는 글을 올려 8일 현재 조회수 7만 9천150여 건을 기록 중이다.

그는 "서울대는 아니지만 논술을 치는 서울지역 대학에 응시했다"며 "학교의 권위에 따라 수능 후 서울 대치동의 논술 학원에서 한 번에 8만원씩 하는 논술 강의의 8번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을 잘 친 군지역 학생들은 거의 상경해 짬뽕방이나 하숙집에 살며 논술을 배운다"며 "군지역 학생들의 논술 점수가 0.2점 높았다는 것만으로 사교육이 안 먹힌다는 자료를 낸 서울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글에 대한 네티즌의 댓글은 310건을 넘어서며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네티즌 'Carpediem'은 "논술학원 다니다고 논술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너런녀석'은 "수능 끝나고 겨우 한 달 논술학원 다니다고 그런 실력이 검증된 니까?"라고 되물었다.

반면 '수니'는 "제 주변 아는 학생들 논술준비 차 서울가고 서울대 출신한테 논술지도 받느라 돈 엄청 든다고 하소연하는 엄마들 많아요"라고 적었다.

'LifegoOn'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라. 논술이 현실적으로 사교육 없이 가능한 시험인지 수험생들에 물어봐라"고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남경찰 설 대비 특별 방법활동

전남지방경찰청은 8일 설을 앞두고 각종 범죄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법활동과 물가저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설 연휴 다음날인 20일까지 관내 1천676곳의 금융기관 등 범죄 발생 취약지역에 대해 사전 방법진단과 순찰·검문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범죄 이동로 356곳에 검문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도로바이 날치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12 순찰차의 담당구역을 3~5개 단위로 설정해 반복순찰과 검문검색에 나서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검문검색과 순찰을 늘릴 계획이다.

경찰은 또 제수용품 매점매서·원산지 허위표시 등 물가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다음달 2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굴 생산량 70% 급감

고흥·여수 어민들 빠른 재해보상 촉구

지난해 10월 고흥·여수지역의 굴이 대량 폐사한 이후에도 작황이 계속 부진, 사상 유례없는 흉작이 될 전망이다.

고흥 해양수산사무소(소장 김양섭)에 따르면 1월 중 관내 굴 양식장 4개소에 대해 어장 예찰을 실시한 결과, 전년동기에 비해 ▲패각 성장 ▲알굴의 개체 중량 ▲비만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굴 작황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지난해 10월 중 수온이 21~22도에 25일간 지속되어 우량 굴이 대량 폐사한 이후 작은 개체만이 생존, 채취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흥의 경우 2월 현재 채취율은 70~80%지만, 생산량과 생산액은 지난해에 비해 50~6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1천300억 생산, 8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또 작

강진서 굴 떠던 60대 실종

지난 7일 오후 강진군 칠량면 봉향리 해안가로 굴을 따라 갔던 김모(여·61)씨가 짙은 안개때문에 갯벌에서 길을 잃고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현직 판사 '조폭과 해외 골프' 사표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의 기업가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접대를 받은 현직 판사가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소속 정음지원에 소속된 A판사가 2001~2004년 조폭 출신의 40대 기업가와 함께 필리핀 1회·제주도 2회의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

○A판사는 군산에서 상호저축은행을 운영하다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동생으로부터 향음과 골프 접대 등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뒤 사표를 낸 전 군산지원 판사 중 1명으로부터 이 기업가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ell Banking

셀뱅킹은, 건강함에 자신의 세포를 보전해왔다가 협회등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다목적 세포은행 | 한국골기세포은행 광주지점 | 077-3475

배터리 월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최저 100% 가격을 80%

◆ 배터리 막대, 도대체 월가에 어떻게 올라갈까요?

배터리 막대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용, 가정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배터리의 생산과 유통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배터리를 월가절감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객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배터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배터리를 월가절감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객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배터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막대, 그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배터리 막대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용, 가정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배터리의 생산과 유통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배터리를 월가절감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객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배터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배터리를 월가절감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객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배터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월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배터리 월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배터리 월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